

삼성코닝, LCD용 면광원 사업 진출

탕정 LCD단지에 공장 건설 ... CCFL 방식 탈피 오슬람과 기술제휴

삼성코닝이 급성장하고 있는 TFT-LCD의 핵심부품인 면광원 FFL(Flat Fluorescent Lamp) 사업에 진출한다.

삼성코닝은 최근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세계 첫 개발에 성공한 LCD TV용 면광원 사업에 진출하고 4월21일 충남 탕정 LCD단지 내에서 면광원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LCD TV용 면광원은 TV 크기에 관계없이 단 하나의 램프만으로 LCD 패널 전면을 비춰주는 제품으로 기존 냉음극형광램프(CCFL) 방식 광원에 비해 원가를 20-30% 줄일 수 있고 자동화 공정이 가능해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기존 방식이 중소형 LCD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반면, 면광원 방식은 30인치 이상 대형 LCD TV 시장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코닝 송용로 사장은 “과거 30년 동안 주력사업인 브라운관 유리가 성장 한계에 도달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TFT-LCD의 핵심부품이자 차세대 광원인 면광원 백라이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면광원과 더불어 친환경 제품인 무수은 타입 면광원의 사업화에 대비해 세계적인 램프 제조기업인 독일 오슬람과 기술제휴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LCD TV용 백라이트 시장은 2003년 600만개에서 2006년에는 2000만개로 대폭 늘어나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국내 LCD 산업은 그동안 CCFL 방식의 광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면광원 개발과 사업화로 경쟁이 치열한 LCD 시장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삼성코닝 송용로 사장(오른쪽 네 번째 흰옷)과 삼성전자 이상완 사장(세번째 검은색 옷)이 탕정 LCD단지 소재 면광원 공장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4/22>